

# 김 정 한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김정한 박사는 조합알고리즘(combinatorial algorithm)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수학자이면서 컴퓨터과학자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김정한 박사를 만난 건, 박사학위를 받고 Bell Labs이라는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했을 때다. 1993년 7월이다. 당시 Bell Labs은 과학기술 순수연구를 맘껏 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순수 연구진으로 합류한다는 것은 꽤 운 좋은 경우였고, 당시 그렇게 조인하는 사람중에 한국인이 있으면 분야막론하고 서로 반갑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김정한 박사는 나와 같은 해에 Bell Labs 연구진으로 합류한 입사동기였다. 김정한 박사와 나는 다른 부서였지만(김정한 박사는 “Information Sciences Research” 소속이었고, 나는 “Software Principles Research” 소속) 한국인들끼리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연락이 되었는지 아무튼 그랬다. 막 박사를 받고 패기넘치던 우리 둘은 서로 연구분야 이야기, 한국 정치/사회 이야기, 가족 이야기등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내가 1995년 KAIST로 부임하면서 서로의 갈 길을 가게되었다.

이후 김정한 박사는 이산수학 분야의 최고상인 Fulkerson Prize를 1997년에 받았다(박사논문). 한국인 수학자로 이런 상을 받은 경우가 처음인듯했다. 국내 수학계에서도 자랑스러워했고 국내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으니.

그후 Microsoft Research(MSR)로 옮겨서 약 10년 동안(2007년까지) 재직하였다. 당시 MSR의 유일한 한국인 연구원으로 한국 언론의 이런 저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한국 수학계와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김정한 박사를 이런 저런 일로 국내로 초청했다. 내가 KAIST에 재직중에도 초청해서 세미나도 하고, 교수로 스카웃하려고도 했다.

한가지 일화가 있다. MSR에 재직중에 김정한 박사가 2000년대 초에 서울대 수학과에서 초빙 강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학부생이었던 정교민교수(현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이 강의를 듣고 김정한 박사와 개별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때 성과와 지도를 발판으로 정교민 교수가 MIT 수학과로 유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교민 교수도 당시 훌륭한 학생이었겠지만 김정한 박사의 추천서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난 4월15일 김정한 박사와 저녁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국내 학계이야기로 안주거리를 삼게되었다. 국내 알고리즘 분야가 더 성장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끝에 우선은 우리 학부 Distinguished Lecture Series에 모시게 되었다. 우리 학부 교수님들과도 접점을 더 만들어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조합알고리즘(combinatorial algorithm)의 세계를 소개하는 좋은 계기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광근, 2024년 5월